

환영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달의 캠페인 - 성탄의 기쁨, 가정과 이웃으로

대림절

·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절기입니다.

당회

· 예배 후 4시 5분부터 2016년을 위한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총회

· 각 선교회 총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일부 변동된 연령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설: 부부선교회 결혼-1980년, 2남선교회 79-62년, 2여성교회 79-64년, 3,4남여성교회 동일

저녁기도회

· 전 교인 한주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해를 기도로 정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시 2015년 12월 15일(화)-18(금) 오후 7시 45분 주제: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5-22) 기도: 화- 정진백집사 수-김봉희권사 목-최봉수집사 금-김영옥권사
· 금요일 저녁기도회가 11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공동체

· 각 공동체 모임은 다음주부터 1월 중순까지 방학에 들어갑니다.

섬김

· 중고등부 교사, 주방에서 봉사할 성도는 자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 성탄 전야제가 23일(수)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별로 성탄 축하 케익 만들기 경연대회를 합니다(행사진행부 주관).

생명의 삶 구독

· 성경말씀을 묵상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 생명의 삶을 추가로 정기구독할 성도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담당:정혜숙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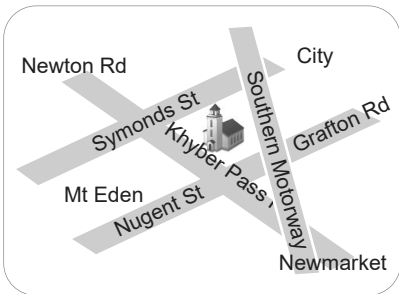
목회자 동정

· 이태한 목사는 7일(월)-9일(수)까지 목회자 출애굽기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교우소식

· 이사: 박제용장로, 김영옥 권사. 신장우, 박소진 집사 41 Millen Ave Pakuranga. 전화: 527-3200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 주일예배 주일 PM 1:00
- 청년모임 주일 PM 3:00
- 수요일예배 수요일 PM 7:30
-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 아 동 부 주일 PM 1:00
- 중고등부 주일 PM 1:00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이 태 한
- 부 목 사: 심 창 진
- 부 목 사: 이 성 철

설교 방송

- www.youtube.com/calvaryorgnz
- www.koreaniptv.co.nz



2015년 표어

거룩 (롬12:1), 부흥 (마5:8), 나눔 (잠11:24,25)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2015년 12월 6일 주일 17권 49호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찬 양	주일 찬양단
※ 예배로 부름	히브리서 10:19,22
※ 찬 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대 표 기 도	김철재 집사
성 경 봉 독	로마서 3:9-18
찬양대 찬양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둔 바다/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정말 의인이 하나도 없다면 /이태한목사
찬 송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 응 답 송	여기에 모인 우리
※ 축 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청년 모임
오후 3시
소그룹 나눔과 성경공부
기도 / 김규현 형제

수요 예배	
찬 양	수요 찬양단
기 도	한상순 집사
성경봉독	요한복음 11:1-15
설 교	밋게 하려 함이라 /이성철목사
광 고	인도자
찬 송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주 기 도	다같이

- 금주의 기도제목**
1. 어지러운 세상에 복음이 기준이요, 복음이 소망임을 밝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2. 영적으로 곤고하고 소외된 이웃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열정이 깊어지는 성도들이 되도록.

선교와 증보기도

이번주는 선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비 선교사로 약 2년 동안 우리와 함께하며 선교를 준비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강기동, 문지현 집사가 교회를 떠나면서 보내온 글입니다.

1-1=ALL

선교사로 살아가고픈 저희의 바람과 열정은 크지만, 많이 미성숙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십니다. 뉴질랜드에서 2년 좀 안되는 시간동안, 평신도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해 매일 매일 다짐하고 되내어야 할 것들 몇가지를 배웠습니다.

1. 정체성

‘나는 선교사다.’라고 매일 외쳐야 그나마 우리의 목적을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누군가 불리워서 우리 스스로를 선교사로 인식되지 않아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잘 넘어졌는지...

2. 딱 한가지

딱 한가지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이 한가지가 너무 쉽고, 간편한 반면, 그 한가지가 어찌나 안되던지요.

3. 완성시키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한단계 성숙시키셨음을... 그리고, 앞으로 죽을때까지 그러실 것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엔 얼마나 마음 고생을 하고 불안하고 조금해 했었는지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은 불안함 보다는 ‘기대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라는 하나(1)가 있는데, 거기서 ‘내 자신’이라는 그 하나(1)만 빠진다면 완벽한 모든 것(ALL)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분씩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잠시 이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소식 전하고 또 뵈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12월 교회일기	◎ 12월 예배봉사가	◎ 기도문서
금요기도회: 12월 11일(금요일) 대림절 셋째주일: 12월 13일(주일) 한주간 저녁기도회: 12월 14일(화)-18일(금) 성탄전야제: 12월 23일(수요일) 성탄감사예배: 12월 25일(금요일) 송년주일: 12월 27일(주일)	예 배 안 내: 손조훈/김은우 새신자안내: 김수원/최희숙/ 박혜숙/이정인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윤경례/박제란 김명옥/장미선	이번 주 애찬: 김영옥 권사 다음 주일: 박병민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홍진솔 자매 12월 16일 수요: 한누리 집사 12월 16일 애찬: 김봉희 권사 12월 20일 주일: 현석호 장로 12월 20일 청년부: 권우석 형제